

군산시, 교회발 코로나 불똥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명 확진... 교회 거주 모녀 성남 확진자 접촉으로 12·13번 확진...역학조사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하던 군산으로 내려온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됐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모녀관계인 군산2번 A(60대)씨와 군산13번 B(30대)씨는 서울 영등포구 주민으로 지난 7일 말경부터 지난 12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주해 왔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오전 성남확진자(성남207번)와 접촉했으며 15일 분당보건소에서 접촉자 연락을 받았다. 현재 무증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경북공역 근처 고시원에 머물다 지난 16일 고속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내려왔다.

내려온 후 군산에서 월세집을 구했으며 지난 17일 병원을 방문하려다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검체를 채취했다.

보건소 구급차로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된 후 이날 오후 8시 5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이들과 접촉한 접촉자는 역학조사 및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중이다. 또 방문한 거주지 및 방문장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

시는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해 추가 동선 확인 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12, 13번 확진자는 성남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에서 접촉자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내려왔다”면서 “군산시는 발 빠른 수습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니 시민들은 걱정보다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또 다른 확산을 방지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

익산시 간담회... 추진방향 논의

익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14일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5개 발달장애인 유관단체(꿈마루협동조합, 전북특수교육·복지실천연합,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장애인참교육협회, 한국장애인사립협회 전북지부 익산가족팀)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관 건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방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익산시 발달장애인은 2,400여명으로 현재 지역에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시설이 한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부모

의 극심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 내외(지상3층) 규모로 국가예산 확보(총 사업비 80억, 부지매입비 20억 정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단체 대표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기쁘다”며 “익산시와 협력해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내실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권리보장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홍보단 야심찬 출발

전통시장 현장네트워크 활동 · SNS포스팅전문 진행

군산시 상권르네상스사업단(단장 신지양)은 지난 17일 오전10시에 군산공설시장 2층 청년몰에서 ‘글로벌홍보를 위한 네트워크-DAY’라는 주제로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다문화이주여성 등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20명의 홍보단원이 함께했다.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홍보단에 선발

된 단원들은 주로 전통시장의 현장네트워크 활동과 SNS포스팅을 전문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 회원의 경우 모국의 SNS네트워크를 활용해 군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과 지역상인들의 이야기를 모국어로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위해 예비사회기업인 ‘부어앤미디어 아카데미’가 운영에 참가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지역상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상권르네상스사업과 함께할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글로벌홍보단>은 10회차의 전문미디어 교육활동과정을 이수하면서 군산시 전통시장과 지역상인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포스팅 하게 된다.

르네상스사업단 관계자는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글로벌홍보단이 지역의 상권뿐만 아니라 군산의 문화와 특색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상권르네상스사업단(단장 신지양)은 지난 17일 군산공설시장 2층 청년몰에서 '군산시 르네상스사업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익산시 “농작물 피해 신속 복구” 주문

정현을 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15일 심각한 농작물 호우 피해 지역인 황등면을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들은 지난 7일부터 내흘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벼

이삭 출수 전 썩음 현상이 발생한 곳이다. 이 같은 현상은 벼가 장기간 빗물 속에 침관수되어 발생된다.

정현을 시장은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우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을 위해 읍면동에서 지난 10일 호우 종료 시점부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대 새중원-에이피솔루션즈 ‘맞손’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하 새중원)과 (주)에이피솔루션즈가 18일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을 마친 후 에이피솔루션즈 이지열 대표는 “향후 새중원과 연계, 군산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고려하여, 군산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겠다”면서, “에이피솔루션즈의 숙련되고 효율적인 첨단기술들을 군산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에

이피솔루션즈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군산의 중소기업들과 해외시장 판로를 함께 개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중원 설남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 확보 및 전기자동차 업종으로의 전환, 판로 개척에 있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산업이 선순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에이피솔루션즈가 군산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과 시제품 상용화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피솔루션즈는 1999년에 설립된 IT융합 엔지니어링 토탈 솔루션즈 기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다함께 돌봄센터 5호’
익산시 위탁기관 선정

익산시가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돌입할 ‘다함께 돌봄센터 5호’의 위탁기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눔공동체(대표 최광동)’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등 내부위원과 시의원, 전문가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다함께 돌봄센터 5호’는 영등동 이리미원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건물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리모델링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열매나눔공동체는 오는 10월부터 5년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병재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초등학교 돌봄이 필요한 가정 주변에 돌봄센터를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영등도서관 ‘임시 휴관’

익산시립영등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개선 공사에 돌입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도서관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임시 휴관한다.

시는 국비 8억원과 시비 12억원 등 생활 SOC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도서관 증축으로 자료실을 확대하고 북카페 신설, 장애인에 위한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한다. 이를 토대로 최신 도서관 트렌드에 맞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임시 휴관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은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도서관 대회의 경우 가까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익산=정왕원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